

# 大學에서의 教授·學習體制的 문제점과 개선책

韓 仁 圭  
(서울大 畜産學科)

최근에 주요 言論 媒體의 보도를 통하여 우리나라 大學生의 學習量이 先進國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事實이 널리 알려졌다. 이에 筆者는 이 論壇을 통하여 그 原因을 大學 內的인 것과 外的인 것으로 나누어 分析해 보고 앞으로 모든 大學人과 政府當局이 함께 努力하여 효율적인 對策을 수립·추진함으로써 하루 속히 大學教育의 先進化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 1. 問題點과 그 深刻性

얼마 전에 韓國大學教育協議會가 이른바 '大學生 學習量 증대 방안 연구'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아울러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었다. 이 때에 配付되었던 資料를 가지고 都下 주요 일간지와 각 言論 매체에서는 우리나라 大學生이 工夫를 덜 하고 있는 개탄스러운 현실을 報道한 바 있었다. 어떤 新聞에서는 '세계의 꼴찌 大學生'이라는 제목의 社說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몇 가지 격정스럽게 여겨지는 大學生들의 學習 實態를 보면 첫째, 우리나라 학생들이 실제로 한 講座를 위해 週當 투입하고 있는 學習 時間은 48.6%의 學生이 1~2 시간, 22.6%의 학생이 3~4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데 비하여 日本, 미국, 英國, 독일, 프랑스 등 先進國의 大學生들은 보통 5~6 시간이고 相當數(20%)의 學生

은 7~8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大學生들의 전공 서적에 대한 독서량이 外國 대학생에 비하여 너무 적다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한 學期當 평균 2.92 권을 읽고 있는데 비하여 외국 학생들은 평균 7.9 권을 읽고 있다.

셋째, 우리 大學生들은 45%가 도서관을 讀書室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先進 外國 大學生들은 95%가 專攻 영역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째, 講座當 요구되고 있는 리포트의 數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2 편이지만 외국에서는 3~4 편을 요구하는 강좌가 1~2 편보다 많다는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 각 대학의 학기당 法定 강의 기간은 16週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學期別로 이수하고 있는 강의 시간을 보면 1 학기

에는 14~15週, 2학기에는 11~13週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강의 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大學의 수업 체제에 관련된 問題點들을 綜合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大學教育協會는 發表하고 있다.

- ① 講義計劃書가 不實하게 작성되었다.
- ② 講義計劃書を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거나 늦게 배부하는 일이 있다.
- ③ 實際 강의시에는 강의 계획서대로 하지 않는다.
- ④ 교수의 강의 준비가 부족하거나 교수법이 만족스럽지 않다.
- ⑤ 學生들이 수업 준비를 충실하게 하지 아니한다.
- ⑥ 수업 단위 학급당 學生數가 많다.
- ⑦ 강의 중심적이고 學生들의 參與가 소극적이다.
- ⑧ 교수의 강의 기술이 미숙하다.
- ⑨ 과제물의 처리가 不實하게 이루어진다.
- ⑩ 試驗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지 않다.
- ⑪ 試驗中 不正行爲가 많다.
- ⑫ 성적이 교수의 임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 ⑬ 수업의 計劃과 實施에 대한 평가가 없다.

여기서 이러한 大學 講義의 不實이나 大學生의 學習量 不足이 외부적으로 노정시키는 問題點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筆者는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이다. 質이 우수한 學生들을 맞이했지만 제대로 공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 學生들이 卒業後 高度의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産業戰線에 뛰어 들었을 때 일단 당황하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產學의 괴리감과 갈등을 겪어야 하고 그들이 거기서 長期間의 現場教育을 통해서 비로소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해마다 수 천 명, 많을 때는 만 명에 가까운 大學生들이 外國 大學으로 공부하러 가는 現實을 보고, 그러한 社會的 風潮도 문제지만 알차게 배우려면 그 길밖에 없다는 우리 大學의 오늘의 모습이 처량하기만 하다.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의 內實있는 大學教育을 外國 大學에 의존해야만 하는지 大學人으

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企業에서는 물론 大學에서 사람을 구할 때 外國에서學位를 取得한 사람을 選好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우리 大學生들도 따지고 보면 좀더 분발하고 작성해야 할 部類의 사람들이라고 지적해 두고 싶다. 外國 大學生들은 한 學期에 14~15學點을 따면서도 코피를 흘려야 하는데 우리나라 大學生들은 20學點 이상을 取得하면서도 너무나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아니한가? 젊은 時節의 1년은 老年期의 10년과 같다고 했거든 어찌하여 좀더 열심히 공부하려는 努力이 보이지 않는가?

우리나라가 先進國으로 분류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스포츠(올림픽을 치른 나라로서)나 産業分野를 두고 하는 말이지 우리 大學教育은 後進國의 그것과 같은 狀態로 남아 있다는 事實을 부끄럽지만 우리 모두 認定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실로 國家의 將來를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大學教育 現實을 念慮하지 아니할 수 없다.

筆者는 매우 답답하고 恨스러운 마음으로 大學教育(강의)의 문제점을 앞에서 言及한 바 있거니와 그러면 무슨 까닭으로 大學의 學習量이 또는 그 質(內容)이 이토록 문제가 되게끔 하였는지 먼저 그 原因을 살펴 본 다음 나름대로의 對策을 말하고자 한다.

## 2. 學習量 不足의 原因

이른바 우리나라의 大學 文化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그 바탕이 되고 基本이 되는 講義와 實習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原因이 있다. 이를 大學內의 原因과 大學外의 原因으로 나누어 언급하고자 한다.

### 1) 大學內의 原因

첫째, 교수의 講義와 實習에 임하는 자세에 問題가 있다는 것이다. 筆者가 教授生活를 오랫동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大學教育의 不實을 論及할 때는 먼저 教授의 잘못을 告白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러한 表現을 하게 되었다는 事實과 어려운 與件 속에서도 오직 잘 가르쳐 보겠다는 信念으로 大學教育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일부 教授들에게는 이러한 얘기가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事實을 전제해 두는 바이다. 어떠한 學園內·外的인 상황하에서도 설명 포탄이 날아드는 그러한 戰爭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休講은 없다”라는 信念으로 과연 강의나 실습에 우리들이 最善을 다했는지? 강의를 맡은 教授들에게 大學生의 學習量 增大 方案의 열쇠가 주어져 있지 아니한가 라고 하면 지나친 要求가 될 것인지? 다시 말하면 教授들은 과연 강의 계획서의 작성과 배부, 철저한 講義의 준비와 진행, 試驗이나 리포트를 통한 成績 評價 등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向上시킬 여지는 없겠는가 하는 反省이다. 休講이나 缺講 없는 大學을 만드는 一次的인 主役은 우리 大學 教授들이라는 점을 새삼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둘째, 學生의 學習에 임하는 소극적이고 不誠實한 자세는 더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學期當 平均 3 학점짜리 6 과목을 수강하는 學生의 경우 16 週 동안 리포트 5~6 편, 試驗 12~15 회를 치르면 되는데, 이러한 學生의 기본 임무 수행에 투입하는 시간은 5 週 內外에 불과하고 나머지 10 여 週는 非學習用으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어느 學生의 告白을 우리가 現實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大學生들은 全心力을 다하여 공부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政治 狀況이 學生들로 하여금 現實 參與에 강한 충동을 느끼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社會 어느 곳에서도 學部 時節의 成績表를 가져 오라는 곳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學生들이 오히려 大學 時節에는 成績을 무시하는 것이 英雄인 것처럼 착각하는 風土를 이룬 것이 아닐까? 國家百年大計를 생각할 때 각 분야에서 장차 나라의 指導者가 될 우리 大學生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愛國 行爲라는 것을 하루 속히 自覺하기를 바랄 뿐이다.

세째, 大學當局의 努力 不足을 들지 아니할 수 없다. 總·學長으로 지칭되는 이른바 大學의 運營責任者들은 그동안 時局 對處 위주로 學事行政을 운영하지 않을 수 없었던 時代의 狀況 때문에 大學教育의 目的·質的 발전을 도모할 만한 本格的인 施策을 펴 본 일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기초에는 教授들

이 제출한 강의 계획서가 제대로 作成되었는지 또 학기말에는 그대로 강의가 잘 이루어졌는지 살펴 볼 겨를이 없었다. 교수들이 이른바 責任 時間(適當 10 시간) 때문에 얼마나 雜多한 科目의 강의를 해야 하는지 또 熱心히 가르치는 교수와 그렇지 못한 교수를 가려서 승진이나 승급에 반영한다든지 하는 評價制度의 도입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大學의 講義가 아직도 교수 목청, 칠판, 분필, 교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學生들에게 강의 재료(teaching material 또는 hand-out)를 배부하고자 하면 그 복사비를 教授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大學의 現實을 總·學長이 잘 알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學生들의 實習 施設이 매우 부족하고 그나마 실험·실습비가 태부족할 뿐만 아니라 빈번하게 그것도 예고 없이 일어나고 있는 斷電·斷水 現象 때문에 얼마나 큰 불편을 겪고 있는지 大學 當局者나 政府當局이 지금쯤은 알아야 하고 對策을 세워 주어야 하지 않을 것인지? 하루 속히 大學 當局者가 時局 대처에서 농일을 받아 大學 本然의 기본 임무로 되돌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네째, 엄밀한 의미에서의 教授評價制度가 없다. 물론 우리는 教授再任用制度라는 惡法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살아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교수들이 얼튼 듣기에 좀 곱고러운 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해야 할 學習 不振原因의 일종이라 하겠다. 外國 大學의 경우처럼 어느 한 교수의 ① 講義 活動, ② 研究 業績, ③ 著書, ④ 社會奉仕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어떤 教授에게 不利益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교수에게 利益을 주는 이른바 인센티브 제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教授를 위한 포상 제도, 海外 研修, 席座教授制(endowed chair) 등의 導入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은 玉石을 구별하려는 制度的 努力이 없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좀 표현하기 조심스러운 일이지는 하나 오늘날 일부 大學의 教授들이 그래서 講義나 研究에 열중하기보다는 補職에 더 관심을 가지고 行政이나 權力 주변에 서서거리는 사람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學·藝術院의 구성

을 보더라도 엄밀한 意味에서의 學者(선비)들이 모인 곳이라기보다는 大學 行政에 수고한 사람들의 老後 對策같은 인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줄진대 大學教育의 正常化 내지 活性化와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 할 것이다.

다섯째, 大學의 豫算과 施設 그리고 教授의 不足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교수 방법을 개선하고 전달하는 內容의 다양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projector 나 overhead projector 를 사용하고 싶어도 그러한 시청각 기기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대부분의 강의실에 암막 장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 課題物을 주면 學生들은 한결같이 圖書館에 자료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것이다. 實驗實習이 수반되는 과목의 경우, 그동안 상당히 좋아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없는 機器가 있어서 그림으로 說明하고 實習을 대치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어떤 大學에서는 電氣料가 부족해서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기성회비를 전용하는가 하면, 燃料費가 부족해서 난방하기 어려우니 될 수 있는 대로 겨울 방학 동안에는 學校에 나오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이래서 우리 大學社會에는 週 3日 教授니 月·水·金 教授니 하는 말이 공공연하게 쓰이는가 하면 심한 경우에는 教授는 집에서 강의실로, 講義室에서 점으로 곧장 가는 교수까지 있다고도 들었다. eight to five (아침 8 시에서 오후 5 시까지 교수실에 있어야 한다는 뜻)를 교수 생활의 기본으로 아는 미국 대학의 교수들은 우리들의 입장을 신기하게 생각하는 모습도 筆者는 본 일이 있다. 이 모두가 大學의 豫算이나 시설의 不足에서 오는 문제들로 大學教育의 發展을 저해하는 가장 큰 原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政府가 서울대를 위시한 國立대에 투입하는 年間 예산은 先進 外國 大學의 1/10 또는 심한 경우 1/20 도 안 된다고 들었다. 大學教育 투자에 이렇게 인색한 정부가 또 어디에 있을 것인지?

普通 水準의 外國 大學의 한 學科에서 30~40 명의 教授가 하고 있는 研究와 講義를 우리나라 大學에서는 잘하면 10 명 內外, 못하면 4~5 명의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엄

청난 教授 不足의 여건하에서 새로운 學問分野를 받아들이는 커녕 既存 學問의 강의도 深度 있게 그리고 알차게 이루어지기란 根源的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가뜰이나 教授가 모자라는 형편인데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어려운 事情 때문에 教授가 교수로서의 구실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 또한 許多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研究 施設도 부족하지만 워낙에 연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교수들이 研究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 사실 강의 준비를 열심히 하고 理論과 技術에 관한 지식이 해박할수록 좋은 研究 테마가 나오게 마련이고 心血을 기울여 얻은 研究의 결과는 살아 있는 講義를 하는 原動力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講義와 研究는 마차의 양수레라고 하지 않는가? 강의도 연구도 제대로 안 되는 환경이 결국 教授를 낭비하는 비극을 가져오는 것이다. 年前에 일부 언론에서 서울大 教授를 일컬어 3T 教授라 하지 않았는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3T 교수란 오전에는 짹짹 모여 앉아 Tea 를 마시고 오후에는 Tennis 를 치고 밤에는 Television 을 보는 교수의 略字임).

## 2) 大學 外的 原因

이상에서 筆者는 비교적 소상하게 大學 講義가 정상화 되지 못한 大學 內的 原因을 살펴 보았다. 여기서는 大學 外的 原因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落後하였던 政治的 狀況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독재와 不正 선거에 항의하기 위하여 自由黨 시절에 大學生들이 거리에 뛰어나가기 시작한 이래에 共和黨과 民政黨 시절을 지나오는 동안 大學은 學生들의 自由化와 民主化를 요구하는 示威의 열기로 가득하였다. 이러한 學生들의 現實 參與와 데모 事態가 급기야 강의실을 황폐하게 하였고 學習量의 確保에 큰 차질을 빚게 하였던 것이다. 이런 와중에 많은 뜻 있는 大學生들이 처벌을 받아 大學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囹圄의 몸이 되어 젊은 때를 놓치는 안타까움을 겪기도 하였던 것이다. 극소수이기는 하나 일부 學生들은 講義를 듣기보다는 데모 준비에 바쁜 學生 時節을 보내는가 하면 어떤 學

생들은 이른바 運動圈에 속하여 民主化 운동을 大學 生活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쩌든 이러한 政治的으로 암울했던 現實이 大學의 講義를 황폐하게 했고 學習量을 減少시킨 주된 原因의 하나였음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大學生을 오로지 공부하는 일에만 專念하게 할 政治的 狀況이 빨리 와야만 진정 공부하는 大學의 참모습을 되찾게 될 것이다.

둘째, 社會 어느 곳에서도 大學 成績을 존중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社會 現實은 어느 大學을 卒業했느냐만 따지는 듯 정작 살펴 보아야 할 學業 成績이나 전공을 重要視하지 않는 風土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마땅히 따져야 할 職場이나 就業 一線에서 成績을 참고하지 않고 심지어는 大學院으로 進學하는 경우에도 참고하지 않는데 學部 時節에 어렵게 공부해서 成績을 좋게 할 理由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다. 成績이 우수했던 사람은 같은 날 취직을 했더라도 號俸 책정에서 有利한 적용을 받는다는지 昇進이나 昇給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만 열심히 공부할 것이 아닌가?

셋째, 入試制度나 學父母의 과열된 教育열에도 問題는 있다. 現行 學制가 과연 우리나라의 환경에 최적한 것인지도 잘 모를 일이지만 大學 入試 준비를 하느라고 한참 자라고 있는 靑少年이 지옥 같은 生活(高 3 時節)을 하고 있을 때 이후 大學에 가서 좀 놀면서 쉽게 學生 生活을 할 時節을 그리면서 자신을 달래고 있는 것이 오늘의 實情일진대 무엇인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부란 高 3 때까지만 열심히 하는 것이지 大學이란 놀면서 다니는 곳이란 社會의 一般的 通念도 하루 속히 是正되어야 할 풍조라 하겠다.

네째, 무엇보다도 政府의 支援 不足을 들지 않을 수 없다. 文敎部는 그동안 大學教育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하였으나 거의 모든 시책을 時局對處(데모 防止)라는 차원에서 추진해 왔다는 非難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工夫하는 學生, 研究하는 大學'이라는 표어를 내건 때도 있었고 講義計劃書의 作成과 提出을 강요하거나 卒業論文(시험) 制度의 導入으로 공부하는 분위기를

를 조성하려고 努力했을 뿐만 아니라 教授들이 열심히 가르치지 않는다고 判斷하여 한 사람을 놓고라도 講義를 하라는 등 休講이 없도록 다그쳐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大學社會에는 데모가 如前하였고 大學生의 學習量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政府는 그동안 나름대로 부족한 豫算에서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였으나 大學教育의 正常 發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項目에 더 많은 액수의 教育費의 투자를 하지 않으면 根本的인 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해 두는 바이다.

- ① 教授의 획기적인 處遇 改善
- ② 講義 施設(환동기, 암막 등)의 개선
- ③ 충분한 강의실 및 學生用 實習室의 확보와 所要 기자재 구입
- ④ 실험·실습용 경비의 충분한 공급
- ⑤ T.A. 및 실험실 運營 要員의 공급
- ⑥ 전기와 물의 충분한 공급
- ⑦ 圖書館의 확충과 도서 구입량 증가
- ⑧ 教授 海外 研修의 制度化
- ⑨ 教授 T.O.의 증가
- ⑩ 大學院 입학생 쿼터의 自律化
- ⑪ 研究用 기기의 修理 및 노후 건물의 보수
- ⑫ 學術研究費의 증액

### 3. 大學教育 正常化를 위한 對策

大學의 강의와 實驗實習을 정상화함으로써 大學生의 學習量을 증가시키는 일은 祖國의 先進化를 위해서는 물론 國家百年大計를 위해서도 조미의 急先務라 하지 않을 수 없다. 政府를 위시하여 모든 大學人이 이같은 目標을 향해서 총진군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아래에서 大學生의 공부하는 분위기 진작을 위하여 몇 가지 對策을 건의하는 바이다.

#### 1) 大學이 고려해야 할 對策

大學教育의 1차적 責任은 大學과 大學人에게 있는 것이므로 筆者는 먼저 大學側이 樹立해야 할 대책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講義計劃書의 作成은 보다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고 작성된 강의 계획서는 學生들에게

배부하고 그대로 실시함으로써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大學當局은 학기초에 教授로부터 講義計劃書를 받아들이는 일에 그치지 말고 학기말에는 그대로 實施했는지 評價해야 될 것으로 믿는다. 매우 조심스럽게 이러한 提言을 하는 것은 行여 동료 교수들로부터 非難을 받을까 우려해서이지만 大學教育의 正常化 내지 發展이 너무 重要하기 때문에 감히 논의하는 것이니 讀者 諸賢께서는 惠諒 있으시기 바라는 바이다. 즉 大學當局은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方法을 통하여 教授評價制를 導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教授들로 하여금 열심히 그리고 잘 가르치도록 권장하고 또 그렇게 하는 教授에 대해서는 昇進과 昇給에 參考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大學生의 學習量과 質의 改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둘째, 大學當局은 일정 수의 教授와 學生으로 구성된 學習評價委員會로 하여금 매 학기말에 모든 교수들이 가르친 科目을 對象으로 講義의 進度, 內容, 評價方法(시험), 教授方法, 講義計劃書 活用度 등을 綜合的으로 評價하여 각 教授가 다음 학기 강의에 참고하도록 함은 물론 가장 잘 가르친 教授(teacher of the year)를 뽑아 賞을 주는 制度를 도입하기 바란다. 혹자는 이러한 구상이 자칫 大學 教授의 권위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으나 모든 評價를 스코어화 함으로써 公正性을 이룩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셋째, 포상 제도의 擴大 실시를 건의하는 바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學生을 學科別·學年別로 수명씩 선정하여 큰 액수의 장학금과 상금 및 표창장 등을 수여함으로써 大學生으로 하여금 열심히 공부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열심히 가르치는 教授에게도 海外 研修나 國際學會 參加 지원 등 포상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더욱 열심히 가르치도록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네째, 教授들에게 安息年 惠澤을 制度的으로 부여함으로써 6년을 가르친 다음 1년을 國內·外 先進 大學에서 研究하고 教授하며 講義 노트를 개정하거나 教材를 補完하여 더욱 참신하고

알맹이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大學當局은 강의 시설과 분위기를 改善하는 일에 좀더 投資하기를 바란다. 教材의 복사나 배부를 組織的으로 운영함으로써 教授의 負擔을 줄여야 하고, 더 많은 T.A.(적어도 1教授 1 T.A.)를 공급하여 實驗實習의 지도나 채점 등 學習評價를 더 効率的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2) 政府가 세워 주어야 할 對策

현재 우리나라 大學이 처한 형편과 大學教育의 正常化를 위해서는 사실 大學 자체보다 政府가 해 주어야 할 일이 더 무겁고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大學當局이 수립해야 할 對策을 언급한 바 있지만 이 또한 國·公立大學의 경우 政府에서 財政的 지원을 늘려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大學教育을 發展시킬 수 있겠는가?

첫째, 政府는 지금보다 더 많은 豫算을 投入하여 ① 講義室 및 강의 환경 개선, ② 시청각 시설의 활용, ③ 圖書館의 擴充과 장서의 구입량 증가, ④ 實驗實習用 기자재의 具備 및 충분한 材料費의 공급, ⑤ 教授 및 T.A.의 數의 증가, ⑥ 教授의 海外 研修 기회의 대폭 擴大, ⑦ 우수 學生과 教授의 포상 제도 강화, ⑧ PC, 워드프로세서 등 장비의 현대화를 이루어 주어야 한다. 아울러 研究費의 支給을 대폭 증액함으로써 學術的 理論과 技術을 개발함은 물론 教授의 研究室에서 大學生과 院生이 함께 研究 生活에 同參하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學制를 고치든지 國民의 大學教育에 대한 인식을 고치게 하든지 해서 大學教育을 단순히 官觀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産業 一線에서는 就業時 大學 成績을 참고함으로써 “심은 대로 거둔다”는 生活哲學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셋째, 政府는 大學生의 學習量뿐만 아니라 그 質도 개선할 수 있도록 모든 大學人의 의견을 수렴하여 政府에 건의하는 限時的 常設機構의 설치·운영을 검토해 보기 바란다. 가칭 大學教育 改善委員會같은 것을 文敎部나 大學教育協會會

아래에 두어서 長·中·短期 對策을 세워 大學 敎育 改善의 實効를 거두자는 것이다. 이런 機構는 문교부 당국자, 大學敎授, 學生, 學父母 등 수십 명으로 구성하여 우리 나름대로의 大學文化가 정착될 때까지 운영해 봄이 어떨까 하는 것이다.

#### 4. 맺는 말

우리나라 大學生의 學習量이 대단히 부족하여 뜻이 있는 國民들이 念慮와 不安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강의를 맡고 있는 敎授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공부하는 學生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風土 形成을 하지 않고

있는 데도 큰 原因이 있다. 여기에 大學當局이나 政府의 지원이 너무나 부족한 형편이고 보면 오히려 당연한 結果가 아닌지 모르겠다. 금년에 大學 公納金이 10~20% 정도 오른다고 하는데 과연 大學生들은 10~20% 더 배우게 될 것인가? 과연 大學에서 先進國 수준의 우수한 人材를 輩出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동안에도 政府나 大學當局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形態의 改善策이 下達되었는데 왜 實効를 거두지 못했던 것인가? 이제부터라도 大學人은 물론 學父母와 政府當局이 함께 對策을 세워 大學生의 學習量과 質을 改善함으로써 모처럼 造成되어 가고 있는 民族 雄飛의 氣運을 上昇시켜 나가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